

# 유형별 화재사례

송재철  
(화재조사 전문가)

## 보험금을 노린 방화

전기누전(?) 으로 불이 나서 술집 종업원 6명이 사망한 화재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급속 발염할 수 있는 가연물이나 특수 가연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화재원인을 전기 운운하기엔 인명 피해가 커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코자 현장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콘크리트조(1/1 층이나 남쪽에서는 2/0층으로 두층 모두 맥주홀) 건물이지만 사망자 전원이 지상 1층에서 대피한 흔적이 있는 상태로 분산된 채 있었고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임에도 지하층이 심히 소훼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구조부가 변형되어 층간 슬라브(지하의 홀 로비부분)는

폭압으로 붕괴되었고 다른 구조부도 압력을 받은 팽창상태여서 화원부는 1층이 아니라 지하층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화원부 판단과정에서 언급한 바도 있거니와 상층화염이 하층으로의 연소(延燒)는 극히 어려운 것임에도 화원부(火源部)가 1층이라고 한 초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폭발시 압력을 받아 붕괴된 1층 로비부분을 발굴하고 카페트에서 다량의 휘발유 유징을 채취하였다.

따라서 방화혐의에 대한 집중

사진1 노천 유류 저장고 현장의 우측끝에 철제 소화기함이 있고 출입문안에 개 한마리가 소사되어 있다.

조사중에 지하층 주점주인이 화재후 머리, 손목, 발목 등 신체노출부위만 화상을 입고 입원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부상경위 등을 추궁하던 중에 화재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방화한 것임이 밝혀졌다.

손목에 입은 화상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이고 그 외에도 종업원의 사전대피, 궁지에 몰려 실화했음을 자인하는 등 여러가지 사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지만 줄인다.

화재사건의 입증은 어렵다고는 하나 연소현상이란 꾸미기 어려운 이와같은 여타 범죄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 쥐에 의한 지락사고

K공업단지 D화학공장에서 정전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전날 지원공단에서 전기사고가 있어 정전때문에 공정중의액체반응물질 등이 냉각됨으로써 응고되어 이를 제거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빚어진 사고였지만 전 공단을 마비시킨 전기사고는 쥐새끼 한마리가 일으킨 엄청난 후유증의 사고였던 것이다.

지원공단 변전실내 H화학 배전용 11,000V 차단기가 수용된 큐비클(cubicle)의 철판 내벽과 차단기 단자에는 전기적 용흔이 형성되었으며 바닥에는 쥐 한마리가 화상(구강, 구순, 귀, 꺾질은 일부 파열)을 입고 죽어있었다. (대부분 쥐에 의해 일어난 전기 재해시 쥐가 심하게 탄다든가 하는 현상은 보기 어렵다.)

부검 결과는 생체소사(두부, 족 등의 화상사)로 판명되어 쥐가 전극과 함간을 지락(地絡)시킨 결과로 싱겁게 끝났지만 변전실내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다.

이(齒)를 갈기 위해서인지는



사진2 현장중앙에 팽개쳐져 있는 소화기

알 수 없으나 쥐에 의한 변전실내 전기 지락(地絡) 사고는 종종 있는 일이다.

## 유류취급 부주의

노천 유류저장고에서 이른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혹시 방화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 있었다.

현장을 돌아본 후 그러한 의심은 곧 없어졌다. 이러한 경우는 누군가가 직접 접근하여 불을 붙이기는 어려운 것이고 화염병이나 솜덩어리라도 붙여 던질 가능

사진3 땅 바닥에는 아무런 소잔 찌꺼기가 없고 떨어진 드럼통 뚜껑들을 제거한 바닥에 '지포'라이타가 흙속에 반쯤 묻혀 있다.

성은 있으나 인화성 가연물은 재가 남질 않고 솜덩어리 같은 것들은 지꺼기나 재가 남는 것이어서 쉽게 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는 소잔(燒殘)된유류통들과 묶여있던 개 한마리가 타 죽어있고 철조망 문밖 철제함에 놓여져 있던 소화기 한개가 유류고내에 소잔되어 있었으므로 화재전후 누군가가 출입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사진1). 그 사람은 개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고 기름을 따르는 과정에서 확인차 불을 켜다가 인화되자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소화하던 중 걸잡을 수 없는 연소확대에 소화기를 팽개치고(사진2) 뛰쳐나왔을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화상이나 머리카락의 그을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장 바닥을 조사하면서 뚜껑이 열린 '지포' 라이타가 채취됨으로써 개가 평소 출입시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운전요원 등 평소출입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사람을 찾게되었고 그 발화의 경과는 앞의 예상과 같았던 것이었다. (㉞)

